

전염병, Covid-19, 그리고 기독교 영성

권진구(목원대학교/조교수)

daniel1978@mokwon.ac.kr

한글 초록

현재 인류는 전염병의 대유행 가운데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교회와 성도 역시 Covid-19로 인해 예배, 성경 모임, 기도회 등 공동체 모임과 개인의 영적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현대를 포함해 인류에게 여러 차례 지속해서 발생했다. 가까운 예로는 1918-인플루엔자가 있고, 잘 알려진 예로는 14세기 이래로 진행된 페스트(흑사병)가 있다. 기독교는 전염병의 대유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해 영성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과거 전염병이나 질병의 창궐로 인한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연구하고, 이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전염병 상황 가운데 본 논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 제안은 영적 선구자의 삶과 태도, 침묵, 그리고 삼위일체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영성의 사회적 실천이다.

《 주제어 》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 질병, 영성, 기독교

I. 들어가는 말

현재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19)는 2019년 발견되고 명명되어 Covid-19로 불린다. 2019년 이전에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존재했고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바이러스 속(屬; Genus)을 코로나바이러스로 부른다(Shah, 2017, 32). 의학 및 과학 관련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이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의 증상 및 경과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현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스나 메르스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유행(Pandemic)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와 같이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못했다. 모임과 집회가 금지되기도 하고 학교 및 학원의 교육과 종교 단체의 활동도 제약 받고 있다. 기독교 교회의 성도들은 공적 예배와 개인의 영적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비슷한 혹은 더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교회와 성도에게 과거 유사한 현상이나 사건을 소개하고 조명함으로써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전염병 및 질병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영적 삶과 태도를 추구해야 할지 영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논한다. 더욱이 교회는 사회나 국가와 대치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현 상황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기독교적 가치를 제시한다.

Covid-19 상황 속 현재 교회와 성도의 영적 삶을 유지하고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과거의 사례들 속에서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해 어떤 사회적, 종교적 영향이 있었으며,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영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지역과 시대를 중심으로 전염병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전염병 상황 속 교회가 영성과 관련해 어떠한 대처를 해왔는지 조사한다. 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발견되는 영성의 역할과 본질

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질병, 전염, 그리고 바이러스

미국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엔서니 파우치와 데이비드 모렌스(Morens & Fauci, 2007)가 함께 쓴 논문에 따르면 약 100여 년 전 1918-인플루엔자(Spanish Influenze)가 유행해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에서만 6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당시에도 학교, 공공시설, 교회 등은 폐쇄되었고 결혼식, 장례식 등 집회와 모임도 금지되었다(Short, Kedzierska, & Sandt, 2018). 2007년 작성된 파우치 박사의 논문은 다른 감염증이 유행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해 전염병 관리 체계와 의료 시설 등을 변화시키고 확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Morens & Fauci, 2007).

이 인플루엔자는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도 유행했고, 7백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기록되었다(김택중, 2017, 163). 일제의 조선총독부 역시 집회와 모임 등을 금지했다.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은 이보다 더한 전염병의 피해를 수차례 경험했다. 대표적인 예로 1821년부터 1910년 사이 약 10회 정도 콜레라가 유행했고,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1821년부터 단 일 년 사이 1백만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전석원, 2012, 232). 이외에도 말라리아, 천연두, 결핵, 장티푸스 등으로 조선 시대 전체에 걸쳐 수십 차례의 전염병이 유행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질병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세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전염병과 관련된 사건 중에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페스트)이 있다. 흑사병의 원인균은 페스트균(*Yersinia Pestis*)으로 설치류인 쥐, 마뚝 등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인간으로 감염된다. 페스트는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중국, 인도, 몽골 등지에서도 피해가 심했다. 당시 사회체제와 의료 수준으로 인해 14세기 이후 페스트 감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실상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학자들에 따라 추정하는 사망자의 수가 다르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4세기에 발생한 페스트로 대략 유럽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McNeill, 2005, 186-193). 필립 지글러(Ziegler, 2003)는 페스트로 인한 사망자 수를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의견을 소개하는데 결론적으로 최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 사망한 것으로 본다. 페스트가 유행할 당시 고려에도 역병이 흔적이 있어 이를 페스트와 관련짓기도 하고, 고려 충목왕의 사인으로 페스트를 지목하기도 한다. 「고려사」에는 1348년 4월 경성에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했으며, 충목왕은 10월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12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정인지, 1998). 하지만 페스트가 전염병의 원인이었다면 경성을 시작으로 전국에 유행해 수많은 사망자가 생겼을 것인데 이러한 기록은 없다. 또한, 충목왕의 건강이 나빠다는 것이 10월부터 기록되는데, 역병에 대한 언급이 없다. 충목왕이 페스트에 걸렸다면 왕 주변의 왕족, 신하, 궁궐 내의 많은 인원이 감염되었어야 한다. 페스트의 잠복기는 1일에서 7일 정도이고 경과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 며칠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페스트가 사인이라면 10월 또는 늦어도 11월에 충목왕이 사망하거나 회복돼야 했는데 12월에 사망한 기록으로 보아 페스트와 충목왕의 사망 사이 관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 또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이고 당시 유행한 역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았다. 이 전염병은 약 6세기(540년 전후) 중반 유행하기 시작해 중동과 유럽으로 확산하여 페르시아, 이탈리아, 아일랜드까지 그 영향을 받았고,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해 8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강일휴, 2013, 303). 바로 위에서 언급한 흑사병을 발생시킨 *Yersinia Pestis*를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의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Mulhall,

2019, 151-179).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으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에서만 542년에서 544년 사이에 적게는 도시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명 정도가 죽음을 맞았다.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없지만, 중세 페스트가 유럽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빼앗아간 것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보아 고대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 혹은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강일휴, 2013, 317-318).

중세로 분류되는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이전인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전염병은 여러 차례 유행했다. 시카고 대학교의 맥닐(McNeill, 2005)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부터 2세기까지 기록만으로도 로마는 10여 차례 이상 전염병에 노출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인지 규명되지 않은 전염병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Marcus Aurelius Antoninus) 황제 시대인 기원후 165년부터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15년 동안 이어졌다. 김경현(2014)은 로마 전역으로 전염병이 확산한 이유로 도로의 발달, 로마군의 신속한 이동, 상인들의 활동, 질병으로 인한 이주 등을 말한다. 이 병으로 지역에 따라 25%에서 33% 정도 인구가 감소했다고 추산된다. 이후 고르디아누스 3세(Gordianus III)에서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황제 시대에 이르는 241년부터 15년간 불명의 전염병이 로마에 퍼졌고,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오천 명 이상 사망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McNeill, 2005, 138).

위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염병 사례를 알아보았지만, 역사를 통틀어 각 국가, 지역, 민족, 집단에 질병 및 전염병이 유행한 사례는 그 수를 모두 집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어떤 지역에서 질병이나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계산하더라도 기원후 역사에서만 이전 번이 넘는 유행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 발생한 질병과 전염병의 사례를 연구한 고려대 김영환(2001) 교수에 따르면 조선 시대 500년간 160회 정도, 즉 3년에 한 번 역

병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193회, 일본은 159회로 면적과 인구가 큰 중국이 기록상 사례가 가장 많고 조선과 일본이 비슷한 편이다. 이 세 지역에서는 역사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통합 연간 1회 이상 역병이 유행했다.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등 모든 대륙으로 확대한다면 전염병의 유행이 인류에게 얼마나 빈번한 사건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바이러스나 균 등으로 인해 역사가 뒤바뀌었고 인류는 뜻하지 않은 변화를 경험해왔다. 성경은 출애굽기 8장과 9장에서 가축 사이 전염병과 인간 질병의 창궐에 대해 묘사하고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그의 저서 「총, 균, 쇠」에서 천연두, 매독 등 전염병이 인류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노벨 생리학 및 의학상은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결핵, 면역, 바이러스 연구 등을 수행한 학자에게 인류사에 있어 큰 업적을 성취한 것으로 여겨 수상자로 선정해왔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 전염병은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현미경의 발달 전에는 이렇게 중대한 질병이나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작은 생물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전염병과 질병은 자연의 섭리 또는 신의 뜻에 따라 발생하고 사라지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콜레라의 경우를 보면 가장 이성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염된 공기 즉 장기(瘴氣; Miasma)에 의한 감염으로 보는 의사들이 많았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현미경 기술이 충분히 발달한 덕분에 콜레라균(Vibrio Cholerae)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에 의한 감염을 굳게 믿고 있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콜레라 감염 이론을 거부하기도 했다(McNeill, 2005, 286). 참고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흑사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고 대처 요령으로는 연기를 피워 공기 중에 있는 독을 소독하는 것이라 했다(안명준 외, 2020, 136). 현재 우리는 연기를 피우거나 허브를 태우지 않고 연구와

실험을 거쳐 개발된 약, 의료 기술, 예방접종 등을 통해 바이러스나 세균에 저항하고 있다. 전염병과 이로 인한 의학 및 과학의 발달 역시 인류가 경험하는 변화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질병과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이후 어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전염병에 대응하는 신앙 선조들의 예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관한 대표적 사례를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찰하도록 한다.

III. 전염병과 기독교

기독교에 있어 전염병은 하나님 뜻에 따라 발생하는 징벌적 현상으로 이해되곤 했다. 성경 전체에서 전염병에 대한 언급은 50회 정도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구약의 기록이다. 구약에서는 이미 언급된 출애굽기와 사무엘을 비롯해 역대, 시편, 예레미야, 에스겔서가 전염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21장, 24장, 27장, 29장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벌과 같은 것이라 말한다. 예레미야는 44장 13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다. 하나님은 질병의 치유자로 이해되기도 한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는 여호와라 칭하신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규범을 살펴보면 먹는 것과 위생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것을 알 수 있고 구약 성경이 반복적으로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전염성 질병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전염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결책은 회개와 격리 그리고 치유로 나눌 수 있다. 구약시대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 개인 또는 사회의 관계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징계, 인간의 부르짖음과 회개, 용서 또는 회복 등으로 구성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거나 더 축복받는 사례도 있고 상황만 종료되는 때도 있다. 레위기 13장의 기록과 같이 구약시대 중동에서는 한센병, 정신병, 피부병 등 여러 질병에 대해서 격리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는 사실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된 기본적인 의학적 조치이기도 하다.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의해 질병에 걸리는데 짐승의 마음을 갖고 소처럼 풀을 뜯는다는 표현 등으로 보아 조현병 혹은 유사한 정신 질환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왕임에도 당시 사회 규범에 따라 격리 또는 접근 금지 조치를 당했다. 기도나 선지자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는 예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치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물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오성종, 2018, 150).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이르시며 전염병을 언급하신다. 누가는 21장 10절과 11절에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했다. 예수님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징벌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후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이 수차례 기록되어 있다. 특히 마가는 첫 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뒤 곧바로 회당의 귀신들린 자, 열병 앓는 시몬의 장모,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신약에서 전염병에 대한 언급 중 흥미로운 것은 바울에 대한 비난이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터툴로(Tertullus)는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하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을 자극해 소요를 일으킨다고 고발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고, 귀신들림 등에 대해 기도를 강조하신다. 야고보서 5장의 기록에서 보듯이 바울도 질병에 대해 '믿음의 기도'와 죄의 회개를 권면한다. 바울은 여기서 환자에게 기름 부음 등에 대한 예식을 언급하는데 이는 질병의 영적 원인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적절한 대응과 구성원의 건강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lbl, 2002, 123-143). 예수님과 제자들은 질병이 불순종이나 죄로 인한 저주나 벌로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고통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을 위한 돌봄과 치유가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들로 그리고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맥닐(2005)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 교도들이 당대의 이교도들보다 우위에 있던 점 하나는 무서운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도 병자들을 돌보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의료활동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간병만으로도 치사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따라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한 결과 대부분의 제도가 신용을 잃고 있던 와중에 그리스도교는 교세를 오히려 확장했다……. 악성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교도들이 매정하게 병자들을 핍박하고 도망갔던 반면에 그리스도 교도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기록에 남겼다.

그리스도인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권면이 있었고, 이를 신앙과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3세기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Cyprianus, 1868)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과 구원의 확신을 독려하

기 위해 자신의 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고귀하고 지속적인 행복이 영원한 삶 속에 존재합니다. 영광스러운 사도들과 만날 것이고, 선지자들이 반길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가 그들의 영적 싸움과 고난에 대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말과 글로만 신앙을 권면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된 3세기 고대 로마의 전염병을 목격했고 전염병의 마지막 시기였던 발레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순교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유행한 6세기 기독교인들을 향한 당시 지도자의 권면은 전염병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투르의 주교였던 그레고리우스(Gregory of Tours)는 자신의 글에서 갈루스(Gallus 또는 Gall)와 카우티누스(Cautinus) 두 주교의 행동을 소개한다(강일휴, 2013, 311-317). 이는 그레고리우스의 저서 History of Franks(Historia Frakorum 또는 Decem Libri Historiarum)의 네 번째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Internet Archive는 Penguin Classics에서 출간한 영문 번역본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갈루스는 하나님께 밤낮없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갈루스가 살아있는 동안 클레르몽의 시민들은 전염병 피해를 겪지 않을 것이라 알린다. 갈루스는 성도들과 함께 60km 이상 떨어진 성 율리아누스 교회로 순례를 가기도 한다. 그레고리는 클레르몽의 시민 중 페스트로 인해 죽은 사람이 없다고 적고 있다. 반면, 카우티누스는 전염병을 피해 이리저리 도피했지만 결국 그와 그의 사촌은 페스트로 인해 죽게 된다. 그레고리우스는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군트람(Guntram)과 킬페리크(Chilperic)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교한다. 둘은 이복형제로 왕국의 패권을 두고 경쟁했다. 그레고리우스는 전자의 경우 전염병에 대응해 시민들과 함께 기도, 예배, 행진 등을 했고, 후자는 교회와 맞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인물로 묘사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전자의 치하에서는 전염병의 피해가 없었고, 후자의 경우는 전염병으로 아들들을 잃었다고 쓰고 있다. 전염병의 피해 중에도 기도, 예배 등 성도의 신앙을 위한 은혜의 방법들을 지속적으

로 실천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교나 왕은 공적 예배, 기도, 회개 등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도와 예배 등 기본적인 영적 은혜의 방법들은 페스트(흑사병)가 창궐하는 기간에도 계속된다. 영국의 교회 역시 당시 유행한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 여겼다(양신혜, 2020, 210). 이에 따라 영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공적 모임을 지속하고 더욱 장려한다. 나사렛대 이필은(2013)은 전염병에 대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대응을 소개한다. 로체스터의 감독이며 이름난 설교가였던 토마스 브린톤(Thomas Brinton)은 페스트의 원인이 영국에 편만한 죄라고 설교했다. 캔터베리 대주교 존 스트랫퍼드(John Stratford)는 회개의 필요를 역설하고 각 교구에 기도를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 서울대 박흥식(2019a)에 의하면 영국 국왕은 이 대주교에게 전국적인 기도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트랫퍼드 대주교는 영국에서 페스트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인 1348년 8월에 사망한다. 가톨릭교회는 그동안 적대적으로 대해 왔던 유대인들에 대해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들어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이필은, 2013). 그 외에도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금식기도, 특별기도회, 중보기도회, 금요집회 및 행진 등에 앞장섰다(박흥식, 2019a, 19; 이필은, 2013, 323). 예배, 기도, 행진 등은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있었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치이고 당시에는 믿음과 실천을 위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성직자가 전염병 이전과 같이 책임을 다해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주교의 예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서 성도를 방문하고 돌보는 것을 거부하거나 전염병을 피해 도피하는 성직자도 있었다(양신혜, 2020, 214; 박흥식, 2019a, 19-21).

교회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성도의 공적인 모임은 교회와 사회에 영

향을 주게 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페스트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교회의 성직자에게도 적용되는 현상이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당시 사회는 노동력을 잃었고 그만큼 많은 성직자도 잃었다. 박흥식(2019a)은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 영국 성직자 사망률을 분석하는데 이에 따르면 성직자의 45%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흥식(2019a)은 하급 성직자와 수도자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하급 성직자는 고위 성직자보다 활발하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장례식 등에서 망자의 가족과 접촉함으로써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단체 생활을 하는 수도자의 환경이 감염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켰을 것이라 본다. 지글러(Ziegler, 2003, 156)도 감염자와 지속해서 접촉했던 성직자의 사망 확률이 더 높았을 수 있고 평균 연령도 성직자가 높은 편이어서 더 피해를 보았다고 본다. 성직자의 사망에 따른 인원의 감소는 여러 결과를 발생시킨다. 첫째, 새로운 성직자를 단시간에 공급해야 했다. 성직자 사망에 관한 여러 사례를 보여주는데 독일의 경우 12명이 57개의 교회 또는 기관에서 겸직된 사례도 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한 교구에서는 약 7개월 동안 100여 명의 성직자가 새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성직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었다. 박흥식(2019a)에 따르면 페스트 발생 이전 1343년부터 1348년까지 영국에서는 연평균 138명 정도 사제를 배출했는데 페스트 유행 이후인 1350년 한 해에만 724명이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를 위해 성직자 서품 나이를 낮추기도 했고 부적격자가 합격되기도 했다. 유럽 기독교 사회 전체에 걸쳐 성직자의 성품, 자질, 목회 수행 능력이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둘째, 페스트의 창궐과 성직자의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회의 예배, 예전, 예식 등을 집전할 인원이 부족했다. 죄 고백(고해성사)과 장례식에 대해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6세(Clemens VI)는 성직자의 거부 또는 부재로 임종 시 마지막 도유(종부성사) 또는 죄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영적 형벌을 면하여 준다고 선언하였다. 즉, 대사(Indulgence; 大赦)를 선언한 것

이다(Byrne, 2007, 160). 이는 당시 성도들의 불안과 불만을 위로하고 잠재 우려는 방편으로 실행된 것이다. 성직자를 통한 성례전이 불가능해지자 사제가 아닌 부제가 하도록 했고 임종 시 믿음만 있더라도 충분하다는 주교의 선언이 있기도 했다(Ziegler, 2003, 158). 따라서 사제 또는 수도승이 아닌 성도가 성직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김병용, 2007, 170).

셋째, 개인적 믿음 또는 민간 신앙이 활발하게 표현된다. 성직자의 수는 줄었지만, 질병과 사망, 사회 혼란과 불안 등으로 인해 예배나 기도에 대한 요청은 더 늘어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성직자의 수가 부족했다. 조선대 김병용(2007)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페스트가 교회의 기도의식이 대중화되고 개인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면서도 미신적 요소의 영향이 커졌다고 본다. 김병용(2007), 지글러(2003), 그리고 흑사병 백과사전(Byrne, 2010) 등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것 중 하나는 채찍 고행자(Flagellant)이다. 이들은 페스트를 종말론적 현상으로 해석했고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면서 행진했다. 이탈리아나 독일 등지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고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이들을 정죄했다.

성인공경의 전통은 초대교회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이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고 14세기 흑사병 시기에서 종교 개혁 전까지 절정을 이루었다(강일휴, 2013, 314-317; 장준철, 2015, 271; Archambeau, 2001, 531-559). 초대교회와 중세 교회는 순교자 전통과 관련 있는 성인공경을 중요하게 다루고 지켜왔다. 페스트와 같은 예외적인 현상이 교회와 성직자의 역할을 축소 시켰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인들을 중재자로 여기고 이들을 통한 전구(轉求)나 중보(中保)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박흥식, 2019b, 7-8). 전염병으로 인한 극단적 상황에서 성도들은 성인에게 기도하면서 불안, 슬픔, 좌절, 희망, 기대 등의 감정을 다스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성모 마리아, 3세기 로마 시대 세바스티아누스(St. Sebastianus), 14세기의 성 로코(St. Rocco) 등에 대한 공경이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강일휴, 2013, 314-315;

박흥식, 2019b, 8-9).

넷째, 성직자의 타락과 그에 따른 비판 그리고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일어난다. 페스트로 인해 노동자의 수가 줄면서 임금이 상승했는데 같은 현상이 성직자들에게도 일어났다. 사망이나 감염의 두려움으로 사임하거나 도피해 자신의 교회나 교구를 지키지 않은 성직자도 많았고, 여러 교회를 겸하면서 과도한 사례를 요구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교회를 찾아다녀 비판 받는 성직자들도 있었다(박흥식, 2019a, 21-22; Ziegler, 2003, 327). 사회적 혼란 가운데 성직자들의 비위와 탈선도 늘었다(박흥식, 2019a, 26-27). 술과 노름을 즐기는 일은 흔했고, 세속적 복장을 하고 무기를 휴대하기도 했다. 절도, 성추행, 음란 행위 등으로 인해 재판에 회부 된 사례들도 다수 기록되었다. 이는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영적 권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직자의 부족, 도피, 일탈은 당시 흑사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염병에 대한 대응 중 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은 당시 교회와 성도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흑사병의 창궐을 죄의 문제로 인식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에게 죄를 묻게 된다. 이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뿌려 흑사병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게 되고 클레멘스 6세가 사실이 아니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스위스, 독일, 동유럽 등지에서 많은 유대인이 살해된다(김병용, 2007, 175). 프랑스에서 고문을 통해 유대인의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는 대학살이 자행되었다(Ziegler, 2003, 130-131). 유대인에 대한 폭력은 3년 이상 지속하였고 화형, 처형 등의 방식으로 사망한 이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여성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극심해지게 된 것도 전염병으로 인한 증오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있다(양신혜, 2020, 214; Sharpe, 2001, 362). 이 외에도 범죄율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계급 또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 되어 여러 차례 큰 소요, 반란, 전투가 벌어졌다(Ziegler, 2003, 336).

한편 시에나의 카타리나(Caterina of Sienna)나 로코(Rocco) 같은 기독교인들이 흑사병 당시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돌보았고 많은 성직자와 성도들도 헌신적인 간호와 돌봄을 실천했다.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 성인을 공경하는 전통을 더욱 자극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염병의 피해가 지나치게 큰 탓에 기독교적 구제와 구호 활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가족 중 한두 명을 잃은 사람은 운이 좋은 편이었고 홀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았다. 국가, 사회, 교회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고, 실제 몇 지역은 공동화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른 뒤 유럽 사회와 교회는 점차 회복된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같은 전염병이 찾아온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 페스트가 유행해 많은 이들이 피신을 떠날 때 루터는 남기로 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루터에게 물었고 루터는 이에 답하기 위해 헤쓰(Johann Hess)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Luther, 1995. 230-244). 루터는 이 편지에서 영적 목회에 임하고 있는 설교자와 목사는 죽음의 위협에 맞서 남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 모든 악에 맞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이웃을 돕지 않고 떠나는 사람은 살인자와 다름없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살인자로 정죄할 것이라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라 말한다. 비텐베르크에서 1527년 7월경 시작된 페스트는 11월경 기세가 꺾이게 된다.

평택대 안명준은 페스트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칼뱅이 했던 일을 잘 보여 준다. 칼뱅은 병원을 통한 돌봄과 학교를 통한 교육을 후원한다(안명준 외, 2020, 160-162). 병자들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했으며 이웃을 돌보았다. 제네바의 고아, 과부, 부랑자를 위한 구빈원을 후원한다. 제도를 정비해서 전염병에 대비하도록 했고 국가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고민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울 계획을 구상하고 실제 실천에 옮겨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건설하게 된다. 칼뱅은 10세에 페스트를 경험했고 세 명의 자녀와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 루터와 칼뱅 모두 페스트는 신의 진노로 발생한 것이라 믿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우엔훅(Antonie van Leeuwenhoek)이 현미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덕분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생물들을 관찰하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18세기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가 우두 접종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수억 명의 어린이와 성인이 천연두로 사망했다. 1920년대에는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er Fleming)이 페니실린을 발견하였고 1960년대까지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되어 작은 감염에도 죽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말라리아, 콜레라, 페스트 등 대부분의 감염 질병에 대해 적절한 약과 치료가 병행되면 생존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한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도 억제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 아직 적절한 치료제나 예방법을 개발하지 못한 질병도 있지만, 질병이 더는 불가항력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 증명해 왔다. 이러한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이나 전염병을 하나님의 진노 또는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회개하고 기도도 힘쓰며 예배를 드리기보다 생활환경 조사, 식습관 분석, 가족력이나 유전적 원인 파악, 엑스레이, MRI, 역학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한다. 원인에 따라 의사는 환자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고 치료제, 예방법, 예방접종, 수술, 식습관 및 환경의 변화, 상담, 위생,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연 과거 그리고 현재 교회와 성도가 경험해 온 질병과 전염병은 영성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과학의 시대에 영성은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교회와 성도가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매 순간 매 장면 정체성과 본질에 관해 묻고 답했듯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Covid-19의 시대를 살아내는 영성과 이후 어떤 영적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IV. 생기있는 몸과 생기 넘치는 기독교 영성

Covid-19 상황 그리고 이후 겪을 일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와 분석가들이 글과 말을 통해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의 명예교수 마이크 데이비스(Davis, 2020)와 영국 런던대의 알렉스 켈리니코스(Alex Callinicos), 현직 의사 장호종 등은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에서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자본주의의 문제, 증오와 소외의 문제 등을 다룬다. 카이스트 이경상(2020)은 Covid-19 이후 경제, 개인, 사업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고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관련해 농업, 자동차, 금융, 에너지, 식품 등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임승규(2020) 기자, 장두석 교수 등은 경제, 부동산, 사회, 의료, 정치, 교육 제반의 문제를 섭렵하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그려낸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구(2020),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최순진 등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에서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등 분야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보여준다. 이들은 구약, 신약, 종교 개혁, 그리고 현재 상황을 두루 살피고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와 실천 사항을 제안한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 등 학자들도 인터뷰, 기고, 논문 등을 통해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한다. 여러 분야에 걸쳐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주제와 문제는 평범한 성도와 시민을 압도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학자나 전문가의 지식, 통찰, 지혜가 필요한 때이고 예측 가능한 문제와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Covid-19 등 전염병을 통해 위생적 환경과 건강한 신체가 성도의 영적 삶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배웠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불안정한 환경과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해 여러 교훈을 남겼고 오늘의 교회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생기있는 기독교 영성을 위해 Covid-19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루터, 칼뱅, 웨슬리 등 개신교 영적 선구자들의 영적 삶과 영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다룬 두 인물이 성도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을 웨슬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감리교인들의 영적 스승인 요한 웨슬리(John Wesley)는 당시 열악한 환경의 성도와 시민을 위한 의학, 치료법, 건강, 위생, 식습관 등에도 관심이 많았다. 의학과 신앙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겼고, 생활습관을 고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웨슬리(Wesley, 1858)는 다양한 질병, 전염병 등 증상과 이에 대한 설명과 자연적 치료 방법을 적 그의 책 「Primitive Physic 초보적 의술」에서 여러 권면을 적고 있다. 이 책은 1744년 출판되었고 150쪽 정도의 분량이다. 서문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8쪽에 걸쳐 자세히 적고 있다. 집과 옷과 가구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라고 주문한다.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은 적당량 섭취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마치고, 식사 중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한다. 술은 여러 면에서 건강에 좋지 않고, 커피와 차는 맥박이 불규칙한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쓰고 있다. 운동은 필수적이고, 자주 면도하고, 찬물에 발을 씻고, 옷을 너무 두껍게 입지 말며, 잠자리도 서늘한 것이 좋다고 전한다. 웨슬리는 많은 질병과 증상에 대해 알려주고 치료법을 기록했는데 다루고 있는 질병이나 증상은 267개이다. 아마도 당시 성도들이나 시민들이 겪고 있던 건강과 질병 문제를 모두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웨슬리는 그의 영혼과 마음속에 성도에 대한 긍휼과 애통함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기독교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대하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 제안은 침묵에 관해 연구하고 이를 실천할 방법을 찾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미 개신교 교회들에서 묵상과 관상 등 영적 방법에 관한 연구와 실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감리교 목회자를 포함한 개신교 목회자

들에 의해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관상에 대한 오해 또는 신학적 문제 제기로 인해 변화가 더딘 편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침묵을 실천할 것을 제안해 왔다(권진구, 2018, 289-316). 침묵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전통적 영적 방법이며, 나쁜 습관에 적합한 훈련이다. 교회의 예배, 수도전통, 묵상, 기도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회개, 겸손, 경청, 순종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Covid-19에 대한 굴복이 아니며, 한국적 영성에 도전도 아니고, 조용히 있으라는 강요나 무력함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즉각적인 표현은 침묵이다. 전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 가운데 순종함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침묵 가운데 때를 기다리신다. 침묵은 말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훈련이며 영적 삶의 기본자세이다. Covid-19의 상황에서 어찌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영적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제안은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되며,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사회에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질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방법은 우리에게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면이 있다. 질병이나 전염병은 치료되어야 하는 대상임이 분명하다. 전염병이 발생하고 과학과 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성도에게 이 과정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Covid-19, 페스트, 콜레라 등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해결책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 삶을 이어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함으로 의연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실천해야 한다. 질병과 재난 등은 일상에 있어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통해 사람들은 신을 찾고 종교를 의지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기독교 영성에 있어 모든 상황이 예외적 상황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다.

성도의 영적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의 영적 능력, 권위, 책임,

역할,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인도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현재도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과 많은 교육 과정 및 영성 지도의 주체가 성도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회(교단)와 목회자의 영적 돌봄과 지도에서 벗어난 활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세 교회의 페스트로 인한 상황은 우리에게 성도의 개인적 영성의 추구가 긍정적 결과로만 귀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회와 목회자가 성서, 전통, 신학,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해 성도에게 영적 활동을 제공하거나 권면하고 장려하는 것이 우선이고, 개체 교회나 목회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목회자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을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교회와 성도의 영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역사 속 영성 공동체는 언제나 어떤 인물의 영적 권위를 바탕으로 형성, 유지, 발전되어 왔다. 영적 권위는 특별한 기적이거나 이적 위에 세워지기도 하고 헌신, 희생, 사랑 위에 세워지기도 한다. 중세 페스트로 위기를 맞게 된 성직자의 영적 권위는 쉬이 회복되지 못했고, 개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V. 나가는 말

Covid-19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성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감동을 한다. 교회는 모이고 흠어져야 하며 교제하고 사랑하며 관계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공동체이다. 처음부터 교회는 사회적 차원을 내재하고 있었다. 교회는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때부터 비교적 확실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지금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 왔다.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받고 전염의 억제를 위해 통제되는 일도 있었지만, 세계 각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지구 어디인가에

서 쉬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 영적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성도에게 필수적인 일이다. 이는 개인의 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화는 그 자체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 교회는 사회적 비판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어떤 행동이나 선행도 의심 없이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위생과 예방 수칙 등을 잘 지켜야 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보호받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감염이나 전파에 비교적 노출되기 쉬운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비난받아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위생 관리와 예방을 철저히 하는 성도가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감염과 전파의 한 원인이 되면 사회는 피해를 보게 되고 질병의 확산은 교회에 다시 큰 피해로 돌아온다. 중세 페스트처럼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예배, 묵상, 기도, 금식, 철야, 성경 독서, 삶의 나눔, 만찬, 순례, 성례전 등 모든 영적 은혜의 방법은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살리는 것은 가장 고귀한 사회적 실천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가 교회와 성도에게 제시하고자 가치는 기독교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자주 이야기되어 온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 희생이다. 앞서 연구의 내용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위로와 돌봄을 제공했다. 이는 종교개혁자와 웨슬리 등 후대에 이어졌고 교회는 사회적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바 있다. 현재 교회는 과거와 같이 의학적 돌봄이나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나 기독교 관련 단체가 세우고 운영하거나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 병원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방역과 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더 이상의 전염과 이의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방편이고 노력이지 교회의 예배 및 성도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더 빨리 현 상황을 종식 시키고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신앙과 예배 그리고 나아가 영성을 회복하고 지속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구약의 예를 통해 격리가 질병을 예방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이런 방법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와 제자의 예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이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와 학자들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은 한 두달 내로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회는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영적 삶을 회복할 방안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일휴 (2013). 유스티니아누스 역병(541년~750년): 실체, 인식과 대응, 영향, **역사와 담론**, 68, 301-331.
- 권진구 (2018). 영성형성과 침묵. **대학과 선교**, 36, 289-316.
- 김경현 (2014). 안토니누스(Antoninus) 역병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서양고대사연구**, 37, 133-168.
- 김병용 (2007). 중세 말엽 유럽의 흑사병과 사회적 변화. **대구사학**, 88, 159-181.
- 김영환 (2001). 조선시대 역병발생 기록에 관한 분석연구. **Journal of Health Science & Medical Technology**, 27(2), 47-58.
- 김택중 (2017). 1918 독감과 조선총독부 방역정책. **인문논총**, 74(1), 163-214.
- 박흥식 (2019a). 흑사병이 잉글랜드의 성직자와 교회에 미친 영향. **통합연구**, 21(1), 7-31.
- 박흥식 (2019b). 흑사병과 성인공경: 성 로쿠스 현상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61, 1-31.
- 안명준 외 17명 (2020).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 양신혜 (2020). 고난 중에 핀 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 배자의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5, 207-240.
- 오성중 (2018). 신약 시대의 질병과 치유 - 신약신학적 관점에서 (I). **신약연구**, 17(2), 143-179.
- 이경상 (2020).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서울: 중원문화.
- 임승규 외 6명(2020).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서울: 한빛비즈.
- 이필은 (2013). 흑사병이 미사 참여에 미친 영향과 교회의 처신 - 14-15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37, 313-336.
- 장준철 (2015). 중세의 성인 숭배와 성유물 비하. **이화사학연구**, 51, 271-302.
- 전석원 (2012). 1884-1910년의 급성전염병에 대한 개신교 의료선교사업: 개항기 조선인이 질병관, 의료체계에 대한 의료선교의 계몽주의적 접근. **한국기독교와 역사**, 36, 227-268.
- 정인지 (1998). **고려사: 충목왕 무자 4년(1348)**. <http://search.ebscohost.com.proxy.mokwon.ac.kr:8010/login.aspx?direct=true&db=edskrp&AN=edskrp.NODE04270451&lang=ko&site=eds-live>. 2020년 7월 18일에서 인출.
- Albl, M. C. (2002). "Are Any Among You Sick?"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Letter of James, *JBL*, 121(1), 123-143.

- Archambeau, N. (2002). Healing options during the plague: Survivors stories from a fourteen century canonization inquest, *Bull. His. Med*, 85, 531-559
- Bjornlie, M. S. (2020). Gregory of tours and the decem libri historiarum between religious belief and rhetorical habit, *Studies in Late Antiquity*, 4(2), 153-184.
- Byrne, J. P. (Ed). (2010) *Encyclopedia of the Black Death*, Vol. 1. Santa Barbara: CA, ABC-CLIO.
- Cyprianus. (1868). *Ante-nicene Christian library: Translations of the writings of the fathers down to A.D. 325*. Vol 8. Edinburgh: T&T Clark.
- Davis, M. et al. (2020).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서울; 책갈피.
- Luther, M. (1955). *Luther: Letters of spiritual counsel*. Theodore G. T. trans., London: Westminster Press.
- McNeill, W. H. (2005). **전염병의 세계사**. 김우영 역. 서울: 이산. (원저 1976 출판)
- Morens, D. M. & Fauci, A. S. (2007). The 1918 influenza pandemic: Insights for the 21st century, *JID*, 195 (April 1), 10-18.
- Mulhall, J. (2019). Plagues before the pandemics: The greek medical evidence for bubonic plague before the 6th century, *Bull Hist Med*, 93(2), 151-179
- Sharpe, J. A. (2001). Witchcraft. *Encyclopedia of European Social History*, 3. Detroit, MI: Charles Scribner's Sons.
- Short, K. R., Kedzierska, K., & van de Sandt, C. E. (2018). Back to the future: Lessons learned from the 1918 influenza pandemic, *Frontiers in Cellular and Infectious Microbiology*, 8(Oct), 127-132.
- Shah, S. (2017). **Pandemic: 바이러스의 위협**. 서울: 나눔의 집. (원저 2016 출판)
- Wesley, J. (1858) *Primitive physic, or, an easy and natural method of curing most diseases*. Boston; MA.
- Philip, Z. (2003). **흑사병**. 한은경 역. 파주: 한길. (원저 1969 출판)

Abstract

Infection, Disease, and Christian Spirituality

Jingu Kwon

Mokwon University

Humankind has experienced various changes in the pandemic of the Covid-19 for some months from the winter of 2019. The Church and Christians also have witnessed the changes and results of the pandemic in their Christian life and meetings such as worship, Bible study, prayer meeting, personal spiritual activities, and so on. Humans have encountered different kinds of pandemics throughout history. 1918-Influenza is an example, and the Pest(the Black Death) of the 14th century is another. What did the Christian Church do in the pandemics? This study focuses especially on the spiritual matters of each case and era. This study explores the well-known cases of pandemics in history and reflects on the Christian spiritual responses and its lessons. The three points this study raises are the life and attitude of the spiritual figures, the practice of silence, and the social aspect of the Christian spirituality in this time of the pandemic.

《 **Keywords** 》

Covid-19, Pandemic, Disease, Christian Spirituality, Christianity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